

오피니언

테마칼럼

여성세계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향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정대영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너무나 유명한 고대 이스라엘에서 벌어졌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의 거대한 덩치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소년에 대한 신앙의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다윗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개방추세가 대세라면 이 흐름을 받아들이고 빨리 적응하고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 앞에 펼쳐진 거대한 세계시장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경쟁력 있는 것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동력으로 이제까지 타 지역에 뒤떨어졌던 부분을 일거에 압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다.

타지역 압도할 기회 도래

광주의 문화중심도시, 관광업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산업, 전남의 친환경 미래산업, 즉 사남해안개발, 여수 해양 엑스포, 나주혁신도시 및 무안도의 기업도시 등 각 지역에서 21세기형 친환경문화, 관광 레저, 첨단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꿈을 거리고 있는 것이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공사 외기업체 독식 대책 시급하다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지역 대형공사의 추수와 하도급을 외기업체들이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건설업체가 불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를 제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별로 신규사업을 늘리고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주시되는 'DJ 아들' 김홍업 당선자 행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가 무안·신안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 당선자는 26일 김 전 대통령을 예방, 당선인사를 한 뒤 기쁨을 나타냈다.

정기예선 벌써부터 '김홍업 역할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대리인 김홍업'을 통해 선거권 정계개편이나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료 칼럼

김성주



40세가 넘으면 노안이 시작돼 각종 이상이 오기 쉬워 눈 검진을 받는 게 좋다. 가까운 거리의 글씨를 볼 때 돋보기를 써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증세를 가장 많이 호소한다.

문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비문증은 망막에 구멍이 난 망막 박리, 눈 안에 염증이나 출혈이 있는 유리체 출혈이나 염증, 포도막염 등이 있을 때 나타나기도 하므로 안과 전문의의 정밀진단이 필요하다.

중년 이라면 눈부터 챙기시죠

서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다. 눈꺼풀에서 망막과 시신경까지 총 14가지의 검사로 눈의 현재 건강상태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망막에 상을 맺게 하는 수정체 기능을 상실, 결국 시력을 잃게 되는 병이다. 예전에는 수정체가 완전히 혼탁해져 시력감소가 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을 했지만 현재는 수술기법 발달로 인해 초기단계에서도 수술이 가능해졌다.

기고

유순남



광주시 교육청의 학생상담지원봉사자 교육 예산이 지난해의 심분의 일 수준으로 줄었다. 또 광주시 공공도서관과 YWCA, '움직이는 상담실' 등을 통해 운영했던 상담실을 올해에는 3곳만 운영하겠다고 한다.

하는 예방 교육이다.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학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인 상담실과 집단 상담 프로그램 시간을 늘리고 학생 상담자원 봉사제도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 상담실 축소해선 안된다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현재 광주지역 청소년들은 여러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같은 학교 친구를 집단 폭행하고 인터넷으로 성폭행을 사주한 여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초등학생이 같은 반 아이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는 언론 보도 사례가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과를 불러올 수 있다. 물이 오염되면 건강했던 물고기도 죽을 수밖에 없으며 1급수의 물고기일수록 더 견디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장례식장 조문객 신발장까지 만드는 세심함 필요

장례식장은 주차장, 빈소, 객실 등은 넓고 깨끗한 반면 유독 신발장이 없는 곳이 많다. 또 조문객들이 신발을 분실해도 누구에게 변상을 요구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잦다.

떨거나 왁자지껄 떠들수 없게 우리네 정서이고, 또 상가 조문객들간에 서로 친분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알아버린 신발 찾는 것을 포기한다.

스포츠 신문 연예인 이혼·과경 소식 다룰 때 신중 기해야

스포츠 신문에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의 결혼·결별 소식이 많이 나온다. 언론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듯 너나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 같다.

은 흐름에 익숙해진다는데 있다.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을 보면서 저러나는 청소년들이 무슨 생각을 할 것인가.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문에서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Advertisement for 'No Equal Drum' (無等鼓). Text: 정확한 7년 전 오늘, 그러니까 2000년 4월 27일은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분기점이었다. 헌법재판소가 '과외교육 금지'를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Advertisement for 'Over-the-top' (과외허용 이후). Text: '학교 밖 교육영역'에 관한 부모의 교육권을 우선시한 법리(法理)는 타당하다. 하지만 당시 학부모·교사·교육단체·언론은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 붕괴, 소득 수준별 교육 격차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Advertisement for Kwangju Ilbo (광주일보). Text: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허순태, 사장: 발행·편집·인쇄인: 김관영, 논설실장: 김동영, 편집국장: 송정호.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